

錄 取 書

녹 음 일 시	2014년 4월 16일 9시 13분 ~ 11시 56분
녹 음 장 소	해양경찰청 경비전화(2142)
대 화 자	본문 기재
녹 취 분 량	표지 外 78쪽

본 녹취록은 녹음CD의 내용과 일치함을 증명함.

2016년 4월 19일

속기법인 대한

(사업자등록번호 : 264-81-30602)

속기사 林鍾憲 ㉞

(자격번호 : 06-G2-000008)

- ▶ 본 녹취록은 녹음일시, 장소 및 대화자, 지문의 설정은 의뢰인이 한 것이며, 녹음 청취의 미비 등으로 인한 명사나 고유명사의 표기에 오기가 있을 수도 있음.
- ▶ 이해력을 돕기 위하여 불필요한 어구 침삭이나 일부 사투리, 어순 정리는 속기사의 재량으로 정리하였음.
- ▶ '***' 표시는 청취불능 표시임.



◆ 녹음 순번 : #01

◆ 녹음 일자 : 2016년 4월 16일 오전 09시 13분 28초

◆ 대 화 자 : 목포서 상황실장 /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

남자 1 : 예, 감사합니다. 상황실장입니다.

황영태 : 본청 실장인데요.

남자 1 : 예.

황영태 : 목포 어디예요?

남자 1 : 아, 목포 관매도 남방... 잠시만요. 동거차도 남방, 남서방 약 1.7마일입니다.

황영태 : 관매도,

남자 1 : 예. 관매도 남서방,

황영태 : 1.7마일이요?

남자 1 : 예, 남서방 1.7마일.

황영태 : 그래요?

남자 1 : 예. 거기서 세월호라고 나오는데, 세월호 여객선이라고 나오고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.

황영태 : 아, 알았습니다.

남자 1 : 예,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02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14분 38초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상황실장 /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

남자 1 : 예, 감사합니다. 서해청 상황실장입니다.

황영태 : 본청 실장인데요.

남자 1 : 예.

황영태 : 판매도 남서방 거기서 세월호라는 여객선이 침몰하고 있다는데 그게 맞나요?

남자 1 : 예, 지금 방금 저희도 연락 받았습시다.

황영태 : 그래요?

남자 1 : 예. 지금 파악해갖고 보고 드리겠습니다.

황영태 : 아니, 지금 해가지고... 그 근처에 가까이 있는 함정이 뭐 있어요?

남자 1 : 현재 지금 중국어선 특별단속이라 지금 다들 저기하는데.

황영태 : 아니, 중소형 함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?

남자 1 : 예, 100톤급 하나 있습니다. 바로 그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

황영태 : 예.

남자 1 : 예.



◆ 녹음 순번 : #03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15분 29초

◆ 대 화 자 : 목포서 상황실장 /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

남자 1 : 예, 감사합니다. 목포 상황실입니다.

황영태 : 세월호 지금 현재 18노트 이동 중인데요?

남자 1 : 예. 그런데 거기서 계속 전화가 오니까요.

황영태 : 전화가 누구한테 온 건가요?

남자 1 : 그 배 선장입니다, 선장. 그래갖고 지금 배가 침몰 중에 있다고 연락이 왔습
다.

황영태 : 그래요?

남자 1 : 예. 일단 저희들이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
황영태 : 아, 일단 승객들한테 구명정이랑 입으라 하고요.

남자 1 : 예, 다 그렇게 조치했습니다, 지금 이미.

황영태 : 세월호 거기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... 우리 100톤 쪽으로 이동시키는 게 낫지
않아요?

남자 1 : 예. 가까운 데로 근접하게 이동을 시키겠습니다.

황영태 : 123정하고 교신 좀 해 보라 해요.

남자 1 : 예. (옆 사람에게 ‘가까운, 가장 가까운 연안으로 가라 그래.’)





◆ 녹음 순번 : #04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16분 47초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상황실장 /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

남자 1 : 감사합니다. 상황실장입니다.

황영태 : 본청 실장인데요.

남자 1 : 예, 예.

황영태 : 완도 P57하고요, 거기 278 있죠?

남자 1 : 예, 예.

황영태 : 완도 배들 해가지고 그쪽 이동시킬 수 있죠?

남자 1 : 예, 하고 있습니다, 지금요.

황영태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05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23분 26초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상황실장 /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

남자 1 : 예. 상황실장입니다.

황영태 : 예. 본청 실장인데요.

남자 1 : 예. 목포 거... 예.

황영태 : 예.

남자 1 : 우리 가용세력 동원해서 우리가 지시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.

황영태 : 예, 알겠습니다.





◆ 녹음 순번 : #06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23분 56초

◆ 대 화 자 : 목포서 상황실장 /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

남자 1 : 예. 목포 상황실장입니다.

황영태 : 예. 신고자가 선장입니까?

남자 1 : 신고자는 아직 선장으로 안 들어오고 승객이 신고를 했습니다.

황영태 : 선장하고는 교신해 봤나요?

남자 1 : 예. 아직 못 해 봤습니다. 거기 정신이 없는 모양입니다. 승객이 신고를 한 겁니다.

황영태 : 배가 지금 침수가... 기울어진 거예요?

남자 1 : 아, 침수, 침몰 중입니다.

황영태 : 침몰이요?

남자 1 : 예, 예.

황영태 : 그 6,000톤짜리가 금방 그렇게 침몰되지는 않을 건데?

남자 1 : 아, 그건 저희도 모르는데 침몰 중이라고만 연락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목포, 완도, 제주 경비정들 전부 다 하고, 진도군청 행정선, 여객선 동원해가지고,

황영태 : 일단 그거 하는데, 정확하게 해가지고 침수 중이라고 해도 배가 완전히 침몰 가능성 있는 건지 아니면,

남자 1 : 아, 그래서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.

황영태 : 선장하고 직접 교신을 해 봐요.

남자 1 : 예, 예, 알겠습니다.

황영태 : 예.



남자 1 : 예.



◆ 녹음 순번 : #07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27분 23초

◆ 대 화 자 : 목포서 상황실장 /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

남자 1 : 예, 감사합니다. 목포 상황실장입니다.

황영태 : 본청 실장인데요.

남자 1 : 예.

황영태 : 선장하고 통화해 봤어요?

남자 1 : 통화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.

황영태 : 선장 VTS하고, 그러면 진도VTS하고 세월호하고 교신이 안 돼요?

남자 1 : 교신을 지금 의뢰해 났습니다, 지금. 되는 대로 지금 빨리 연락해 달라고. VTS에 연락하라 했습니다, 지금.

황영태 : 아, 정확하게 배가 침수돼가지고 배가 기울어지니까 승객이 겁이 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.

남자 1 : 예.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. 일단 조치는 해 났고요. 동원할 선박은 다 동원시켜 났고 일단,

황영태 : 아, 선장하고, 일단 중요한 게 가장 급한 게 선장이 빠져지고 선장이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하면... 응? 응?

남자 1 : 예,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

황영태 : 응?

남자 1 : 예.

황영태 : 응? 그 선장하고 교신하고 나면요, 혹시 배 침수 같으면 우리 그 구명벌 있잖아요.

남자 1 : 예.

황영태 : 그거 해가지고 승객들 구명동의 입히고.

남자 1 : 예, 예, 그런 조치하겠습니다, 지금.

황영태 : 예.

남자 1 : 예.



◆ 녹음 순번 : #08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32분 05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 / 남자 1

남자 1 : 감사합니다. 정보과장입니다.

황영태 : 예. 고생 많으십니다. 본청 상황실장인데요.

남자 1 : 예.

황영태 : 방금 해가지고 세월호 관계자 그 선장하고 통화한 거 맞나요?

남자 1 : 뭐라고요?

황영태 : 세월호 선장하고 통화한 거 맞냐고요?

남자 1 : 선장은 지금 현재 통화가 안 되고, 승객 중에 한 사람이 우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좌현 50도로 기울어가지고,

황영태 : 좌현 50도요?

남자 1 : 예. 그리고 구명정을 내릴 수가 없답니다, 지금.

황영태 : 선장이랑 통화를 해야지.

남자 1 : 그러니까 지금 선장은 통화가 우리가 해도 안 되고,

황영태 : 남해 VHF 불러도 안 나오는가요?

남자 1 : 예. 그래서 제일 먼저 헬기가 가야 될 건데 헬기는 우리가 총동원시킵니다만,

황영태 : 해가지고 펜더 가면 되잖아요, 지금요.

남자 1 : 예, 예. 우리도 헬기 제일 먼저 동원시켰어요.

황영태 : 예, 예.

남자 1 : 예.

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강도영 / 청와대 이명준

강도영 : 아, 예,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.

— 끝 —

◆ 녹음 순번 : #10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40분 31초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상황실장 /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

남자 1 : 감사합니다. 상황실장입니다.

황영태 : 본청 실장인데요.

남자 1 : 예.

황영태 : 상황 지휘는 지방청에서 직접 하랍니다.

남자 1 : 예, 지금 하고 있습니다, 그래서.

황영태 : 그래가지고 상황담당 건은 청장님이 입청하시면 되겠네요.

남자 1 : 예, 청장님 다 입청하실 거예요.

황영태 : 여기 지금 본청장님 입청하셨습니다.

남자 1 : 예, 예.



◆ 녹음 순번 : #11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41분 47초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상황실장 /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

남자 1 : 예. 상황실장입니다.

황영태 : 예. 본청 실장인데요.

남자 1 : 예.

황영태 : 완도 세력 뭐뭐 이동했어요?

남자 1 : 완도 경비정 말입니까?

황영태 : 예.

남자 1 : 예. 66정, 278, P57 현재 출동 중인 함정 다 나갔고요.

황영태 : 66, 278, P57이요?

남자 1 : 예, 278, 57, 그다음에 66정 보내고요. 그다음에 재박함정도 지금,

황영태 : 비상소집하고 있어요?

남자 1 : 예, 비상소집해서 지금 다 출항시키고 있습니다.

황영태 : 예.

남자 1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12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44분 09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 / 청와대 상황팀장

황영태 : 예. 상황실장입니다.

남자 2 : 아, 예. 청와대 상황팀장인데요.

황영태 : 예, 안녕하십니까?

남자 2 : 그 저기 진도 거 현재까지 정보사항 좀 알려주세요.

황영태 : 지금 해가지고 선박이 승객 450명하고요.

남자 2 : 474명 아니고?

황영태 : 예. 승객 400에 승선원 24명 474명입니다. 474명, 승선원,

남자 2 : 승객 450.

황영태 : 예. 승무원,

남자 2 : 승무원 24.

황영태 : 예.

남자 2 : 예.

황영태 : 승선한 여객선이 인천서 제주로 향해 중에 원인 모를 침수로 인해서 배가 침몰 중이라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승선원이 연락이, 신고가 왔어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현장에 가까이 있는 목포, 완도, 제주... (전화 끊김)



◆ 녹음 순번 : #13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46분 53초

◆ 대 화 자 : 목포서 상황실장 /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

남자 1 : 예. 목포 실장입니다.

황영태 : 그 123정 현장 도착했죠?

남자 1 : 예, 도착했습니다.

황영태 : 그 원거리, 아, 그거 영상시스템 돼요, 안 돼요, 123정?

남자 1 : 예. 123정... (옆 사람에게 물어본 후) 지금 가동시키겠습니다.

황영태 : 예? 가동 지금까지 안 하고 뭐했어요, 그거?

남자 1 : 아, 지금 이제 도착했습니다.

황영태 : 아, 빨리 그거 바로 해요.

남자 1 : 알겠습니다.

황영태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14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48분 56초

◆ 대 화 자 : 목포서 상황실장 /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

남자 1 : 예, 감사합니다. 목포 상황실장입니다.

황영태 : 123정 현장 도착했으면 상황보고 하라 해야지, 지금.

남자 1 : 예.

황영태 : TRS로 하면 되잖아요, 지금요.

남자 1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15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50분 25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 / 청와대 이명준

황영태 : 예. 상황실장입니다

남자 2 : 어. 경비정은 도착 안 하나?

황영태 : 현재 도착했습니다.

남자 2 : 경비정 도착해 있어?

황영태 : 헬기 2대하고 100톤짜리 현재 도착해가지고요. 상황 파악 중에 있습니다, 지금.

남자 2 : 어느 정도 파악이 전혀 안 돼 있어?

황영태 : 해가지고... 보고가 아직 안 올라오고 있어가지고요.

남자 2 : 음... 그래, 알았어.

황영태 : 예.



◆ 녹음 순번 : #16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53분 11초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상황실장 /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

남자 1 : 예, 감사합니다. 상황실장입니다.

황영태 : 예. 본청 실장인데요.

남자 1 : 예, 예.

황영태 : 현장 사진이나 혹시 올라왔어요?

남자 1 :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. 지금 이제 123정에 ENG카메라가 없습니다.

황영태 : ENG 없으면 비디오 그거 3G 모바일 있잖아요.

남자 1 : 예, 예, 알겠습니다.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.

황영태 : 아니, 그 현장에 30분 동안, 40분 동안 가서 준비도 안 하고 뭐하는 거예요, 그게?

남자 1 : 예. 조치를 하겠습니다.

황영태 : 그 현장에 직원들 있잖아요. 사진 있으면,

남자 1 : 예, 예.

황영태 : 예?

남자 1 : 예, 알겠습니다.

황영태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17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53분 49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 / 청와대 이명준

황영태 : 예. 상황실장입니다.

남자 2 : 예. 청와대예요.

황영태 : 예. 안녕하십니까?

남자 2 : 추가사항?

황영태 : 현재 저희 123정이 현장 도착을 했고요.

남자 2 : 예?

황영태 : 123정이 현장 도착해가지고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.

남자 2 : 이거 몇 톤이에요?

황영태 : 그건 100톤급입니다. 그리고 헬기 저희들 펜더 2대가 도착해서,

남자 2 : 헬기 2대 도착해 있다고?

황영태 : 예, 예.

남자 2 : 해경정 1척.

황영태 : 예, 예. 그리고 인근에 지금 상선 3척이 있습니다.

남자 2 : 음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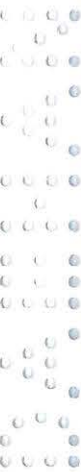
황영태 : 그리고 주변에 동원 가능한 어선들하고 민간어선,

남자 2 : 자, 그거 상선 추가로 두 척이 현장에 있어요?

황영태 : 예. 드래곤에이스하고요, 둘라에이스 해가지고 지금 선박이 두 척이 있습니다.

남자 2 : 이 상선은 뭐하는 상선입니까?

황영태 : 인근에 항해 중인 상선입니다.



남자 2 : 톤수 이런 건 안 나오죠?

황영태 : 예, 예.

남자 2 : 해경척이 현장에서 구조하고 있어요?

황영태 : 예, 예.

남자 2 : 계속 구조 중.

황영태 : 예, 예.

남자 2 : 그다음에 현재 여객선의 상태가 어떤지 그거는?

황영태 : 지금 해가지고 한 30도 정도 기울어진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.

남자 2 : 30도 정도?

황영태 : 예, 예.

남자 2 : 지금 언론에는 90% 이상 기운 걸로 나오는데.

황영태 : 90%면 배가 완전히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

남자 2 : 아, 그러니까 저건 사실이 아닌 거예요?

황영태 : 예.

남자 2 : 그거 누구하고 확인한 거예요?

황영태 : 예. 방금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무선으로 TRS 교신하면서 확인한 거거든요.

남자 2 : 현장 누구?

황영태 : 현장에 지금 123정 정장이 보고 지금 TRS 무선 날리는 거... (전화 끊김)





◆ 녹음 순번 : #18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58분 53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 / 동해청 상황실장

황영태 : 예. 상황실장입니다.

남자 2 : 예, 실장님, 동해청 상황실장입니다.

황영태 : 예, 예.

남자 2 : 아, 이거 여객선 관련해서 저희 뭐 청 헬기 지원이 필요할까요?

황영태 : 가능하면 보내주십시오.

남자 2 : 아, 근데 문서는 저희 쪽에 뭐 온 게 하나도 없어서.

황영태 : 아까 전에도 방금 본청 지시해 가지고 가장 가까운... 뭐, 뭐가 올 수 있어요?

남자 2 : 예. 포항 거 하나 가능합니다.

황영태 : 포항 거 하나 보내십시오, 그러면.

남자 2 : 아, 포항 거 하나 보낼까요?

황영태 : 예, 예.

남자 2 : 예, 알겠습니다.





◆ 녹음 순번 : #19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59분 36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 / 국토부 운항정책과 조대웅

황영태 : 예. 상황실장입니다.

남자 2 : 예, 안녕하십니까? 국토부 운항정책과의 조대웅이라고 하는데요.

황영태 : 예, 예.

남자 2 : 예. 그 진도군 여객선 침몰사건 관련해서 저희 측에서 뭐 도와드릴 사항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신가 해서 전화 드렸습니다.

황영태 : 아, 저희 쪽에서 바로 연락을 다시 드리겠습니다.

남자 2 : 아, 그런 건 없으시고요?

황영태 : 예. 지금 현재 현장에 저희들 헬기 세력은 4대, 5대 정도 도착을 했거든요. 헬기가 지금 3대가 현장에 가 있고, 다른 추가세력들은 도착하고 있으니까요.

남자 2 : 아, 예.

황영태 : 그럼 해가지고 필요사항 있으면 국토부에서 헬기 해가지고... 아, 국토부에 뭐 헬기 가능한 거... (전화 끊김)





◆ 녹음 순번 : #20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00분 57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 / 서해청 상황실장

황영태 : 예. 상황실장입니다.

남자 2 : 예. 실장님 여기 중앙 서해청 상황실장입니다.

황영태 : 예.

남자 2 : 본청장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?

황영태 : 지금 여기에 회의실에 있죠. 위기관리실에 있습니다.

남자 2 : 아, 몇 번으로 전화하면 됩니까, 직접 하려면?

황영태 : 3140입니다, 3140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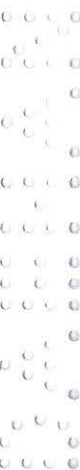
남자 2 : 3140이요?

황영태 : 예, 예.

남자 2 : 7, 34140이요?

황영태 : 예, 예.

남자 2 : 예, 알겠습니다.





◆ 녹음 순번 : #22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04분 23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 / 남자 1

황영태 : 예. 상황실장입니다.

남자 1 : 예, 실장님, 여기 **

황영태 : 예, 예.

남자 1 : 지금 **

황영태 : 예, 예.

남자 1 : **

황영태 : 예?

남자 1 : 학생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교육위원회라서요.

황영태 : 아, 저희도 그거 해가지고 승선원 탄 거는 아는데 누가누가 타고 있다는 건 파악이... (전화 끊김)





◆ 녹음 순번 : #23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09분 31초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상황실장 /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

남자 1 : 감사합니다. 상황실장입니다.

황영태 : 예. 그 헬기 이동할 때 그 122 구조대도 이동시키는 거죠?

남자 1 : 예, 예. 그렇게 하고 특공대도 편승해가지고 보냈습니다. 그다음에 남해청이라든
가 그다음에 서해청도 연락했고, 여수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이동하라고
이야기했습니다.

황영태 : 예. 여보세요?

(전화 끊김)

남자 1 : 예, 감사합니다. 실장입니다.

황영태 : 예. 본청 실장인데요.

남자 1 : 예, 예.

황영태 : 승선원 아까 말씀했던 게 474명 맞죠? 선사 통해가지고 확인한 거요. 승객이
450에 승선원 승무원이 24명이라 했잖아요.

남자 1 : 예, 예, 맨 처음에... 예, 예.

황영태 : 그게 확실한 겁니까?

남자 1 : 예. 확실하게 한번 다시... 잠깐만 기다리십시오.

승선원 명부 가져오고 있거든요.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.

황영태 : 예. 승선원 명부 해가지고 하면 본청 상황실로 팩스 한번 넣어주십시오.

남자 1 : 예, 알겠습니다.

황영태 : 예.

[illegible]



◆ 녹음 순번 : #24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13분 36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 / 남자 1

황영태 : 예. 상황실장입니다.

남자 1 : 예. 고생하십니다. 여기 총리실인데요.

황영태 : 예, 예.

남자 1 : 진도 침몰 중인 선박의 승선인원이 총 447명으로 나오는데, 지금 나오니까?

황영태 : 그 승객이 450에 승선원이 24명으로 저희들이 파악은 돼 있거든요.

남자 1 : 아, 그거 합쳐서 그러면 474명이에요?

황영태 : 예. 일단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474명,

남자 1 : 아, 승선원은 승객으로 하면 되고요?

황영태 : 예, 예. 승선원하고 승무원이 24명이 있어가지고 약 474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

남자 1 : 아, 예, 예. 지금 구조정, 이 배가 도착했습니까?

황영태 : 예, 123정 저희 경비정이 도착했고요. 헬기 3대하고 그다음에 인근에 항해 중인 상선들하고 어선들에 의해서 지금 구조 중에 있습니다.

남자 1 : 아, 예, 예, 알겠습니다.

황영태 : 예, 예.

남자 1 : 수고하십시오.

황영태 : 예.

남자 1 : 상황 바뀌면 좀 부탁드립니다.

황영태 : 예,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25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16분 04초

◆ 대 화 자 : 목포서 상황실장 /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

남자 1 : 예, 목포 실장입니다.

황영태 : 본청 실장인데요.

남자 1 : 예, 예.

황영태 : 그 비디오 컨퍼런스 안 되나요? 현장 그 화면 못 보나요?

남자 1 : 예?

황영태 : 현장 화면 못 보나요?

남자 1 : 잘 안 들립니다.

황영태 : 현장화면 볼 수 없냐고요?

남자 1 : 아, 지금 123정이 지금 저 ENG카메라도 없는 상태에서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, 지금. 50명을 구조해가지고 서거차도 쪽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경황이 없어 갖고 연락이 안 됩니다, 지금.

황영태 : 그래요?

남자 1 : 예, 예.

황영태 : (한숨)

남자 1 : (옆 사람에게 물어본 후) 사진을 찍어갖고 우리가 보내라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, 지금.

황영태 : 예, 알았습니다, 알았습니다. 예.



◆ 녹음 순번 : #26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19분 26초

◆ 대 화 자 : 목포서 상황실장 /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

남자 1 : 예, 감사합니다. 목포 상황실장입니다.

황영태 : 지금까지 구조한 인원들이 몇 명인가요?

남자 1 : 파악 중에 있습니다. (옆 사람에게 물어본 후) 56명 지금 현재 파악, 확인되고 있습니다.

황영태 :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다시 구조한 거 있잖아요.

남자 1 : 예.

황영태 : 해가지고 메일상에다 한번 올려주십시오.

남자 1 : 예, 알겠습니다.

황영태 : 그리고 거기서 받았나요? 저거, 인천서 승선원명부?

남자 1 : 아, 승선원명부 아직 못 받았습시다.

황영태 : 그거부터 빨리 받으십시오.

남자 1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27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20분 05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 / 중앙119구조본부

황영태 : 예. 상황실장입니다.

남자 1 : 예. 안녕하십니까? 여기 중앙119구조본부인데요.

황영태 : 예?

남자 1 : 중앙119구조본부. 해경 상황실 아닌가요?

황영태 : 중앙일보라고요?

남자 1 : 중앙119구조본부.

황영태 : 아, 예, 안녕하십니까? 예.

남자 1 : 예. 장영철 경위님 혹시...

황영태 : 장영철 경위. 예, 잠깐만요.

지금 전화통화 중이거든요.

남자 1 : 아까 전화번호를, 여기 전화번호를 제가 잘못 불러드려가지고요. 그거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.

황영태 : 예.

남자 1 : 여기가 031-570-2000번이거든요.

황영태 : 570에?

남자 1 : 예, 2000번.

황영태 : 2000번?

남자 1 : 예, 예.

황영태 : 예, 알겠습니다.



남자 1 : 예. 그리고 상황보고 하나만 좀 받아볼 수 없을까요?

황영태 : 소방방재청으로는 저희들이 갔는데요.

남자 1 : 방재청에서도 안 받았다고 자꾸 그러니까 저희 중간에서 좀... 헬기는 댔는데 또 상황을 좀 알고 있어야 돼서.

황영태 : 예, 알겠습니다.

남자 1 : 여기가 529-1119거든요.

황영태 : 529에?

남자 1 : 예, 1119.

황영태 : 1119요?

남자 1 : 031-529-1119.

황영태 : 예.

남자 1 : 예, 감사합니다.





◆ 녹음 순번 : #28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23분 33초

◆ 대 화 자 : 상황실장 / 본청 항공과 장영철 / 남자 2

남자 1 : 감사합니다. 상황실장입니다.

장영철 : 예, 실장님, 안녕하십니까? 여기 항공과에 장영철 반장입니다.

남자 1 : 예.

장영철 : 예. 저희 지금 그쪽 동원된 항공기들 주파수가 지금 외부항공기들도 많이 들어
오고 하기 때문에 전체 통일된 망이 좀 필요한데, TRS 52번을 계속 쓰면서 VHF
를 123.1로 해가지고 항공기들끼리 교신하라고 전달 좀 해 주십시오.

남자 1 : 잠깐만요. 우리 항공 여기 있으니까 바꿔드릴게요.

장영철 : 예.

남자 2 : 예.

장영철 : 여보세요?

남자 2 : 예.

장영철 : 예. 누구십니까?

남자 2 : 김대한 경위입니다.

장영철 : 아, 예, 김 경위님, 저 장영철입니다, 항공과에.

남자 2 : 예, 안녕하세요.

장영철 : 예. 지금 그쪽 동원된 항공기들 TRS로 교신 좀 해가지고 123.1 항공망으로 지금
전 다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중앙119하고 소방, 산림, 경찰까지 다
가기 때문에 상호 교신이 안 돼서 좀 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항공끼
리, 헬기끼리 통화할 때는 123.1로 해가지고 다 교신하라고 중간, 중간에 계속



좀 릴레이 좀 해 주십시오.

남자 2 : 릴레이.

장영철 : 예, 예.

남자 2 : 그렇게 할게요.

장영철 : 예, 예, 부탁드립니다.

남자 2 : 예. 그다음에 S90 우리 저기 몇 시에 거기서 이륙하는 거예요?

장영철 : 예. 그거는 지금 확인해 봐야 됩니다. 저도 지금 잘 모릅니다.

남자 2 : 알겠습니다.

장영철 : 예.

남자 2 : 예.



◆ 녹음 순번 : #29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25분 11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항공과 장영철 / 중앙119구조본부

남자 1 : 안녕하십니까? 중앙구조본부 조**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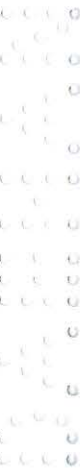
장영철 : 예. 저 해경청에 장영철입니다.

남자 1 : 예.

장영철 : 아까 통화했던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네요. 주파수 때문에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요.

남자 1 : 혹시 신범용 씨인가요? 잠시만요.

장영철 : 예. (전화 끊김)



◆ 녹음 순번 : #30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29분 37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 / 남자 2

황영태 : 예. 상황실장입니다.

남자 2 : 어, 고생한다. 동원세력만 좀 보내줘라.

황영태 : 동원세력이요?

남자 2 : 응. 총 함정,

황영태 : 해경 25척, 해군 10척입니다, 동원되는 게.

남자 2 : 해경 25?

황영태 : 예. 해군 10개 지금 동원시켰고요. 현장 도착한 거는 저희들이 헬기 3대랑 그다음에 P123정하고 P57정은 한 20분 있다가 도착하겠네요.

남자 2 : 아, 그럼 경비정 다 도착 안 했네?

황영태 : 예, 예. 지금 해가지고 오늘,

남자 2 : 아까 뭐 6척 도착했다 하더라 그거 동원한 거 얘기였구나.

황영태 : 예.

남자 2 : 에이...

황영태 : 그래가지고 지금 어제, 오늘 해가지고 서해하고 제주 쪽 특별단속 하고 있었거든요.

남자 2 : 응.

황영태 : 그래서 함정들이 다 저쪽 EEZ 쪽으로 붙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.

남자 2 : 아... 헬기 3척, 3대.

황영태 : 예, 예.



남자 2 : 그다음에 함정 2대?

황영태 : 예, 예.

남자 2 : 뭐, 뭐가 있지? 100톤?

황영태 : 예, 123정, 예, 100톤급입니다.

남자 2 : 2개 다 100톤급이냐?

황영태 : 100톤하고 P정하나요.

남자 2 : 아, 그럼 지금 구조가 어렵겠는데?

황영태 : 중간에 다른 행정선들도 있으니까요. 상선하고 인근 어선들도 있습니다.

남자 2 : 아, 그래?

황영태 : 예.

남자 2 : 그러면 이선시키는 데는 별 문제는 없겠네, 그러면?

황영태 : 일단 최대한 이선해 봐야죠.

남자 2 : 어. 니 통화하기 좀 어렵겠네?

황영태 : 예, 예.

남자 2 : 다른 직원 없냐?

황영태 : 예.

남자 2 : 몇 번으로 하지? 내가 몇 번으로 할까? 니하고 하면 안 되겠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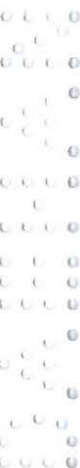
황영태 : 214... 2242로 하시면 되겠네요.

남자 2 : 2442?

황영태 : 2242요.

남자 2 : 2242? 오케이, 알았다. 니 바쁜데.

황영태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31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33분 05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 / 남자 1

남자 1 : 여보세요?

황영태 : 예, 본청 상황실장입니다.

남자 1 : 예.

황영태 : 인원이 477명이 정확한가요?

남자 1 : 예?

황영태 : 477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

남자 1 : 아, 400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450명.

황영태 : 450명? 승객 447에,

남자 1 : 선원들까지 471명.

황영태 : 471명이요?

남자 1 : 예.

황영태 : 다 틀리네, 다 선원 숫자가.

남자 1 : 저 목포... 인천에서 승선기록을 봐야 돼.

황영태 : 예. 그러니까.

남자 1 : 477명이라고 그러네, 정확하게.

황영태 : 예. 477명이요? (옆 사람에게) 야! 야!

예.

황영태 : 본청 상황실장입니다.

남자 1 : 예.





황영태 : 그리고 지금 현재 구조한 인원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?

남자 1 :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건 70명입니다.

황영태 : 70명이요?

남자 1 : 예.

황영태 : 헬기 16명에?

남자 1 : 18명에,

황영태 : P정 아까,

남자 1 : P정에 52명.

황영태 : 707에 옮긴 거는, 인계,

남자 1 : P정 거예요. 아니, 100톤 거예요, 100톤 거.

황영태 : 100톤 거 해가지고,

남자 1 : P123정 거.

황영태 : 관공선에 넘겨준 거죠?

남자 1 : 예.

황영태 : 전남707에?

남자 1 : 예.

황영태 : 아, 707이 구한 게 아니고?

남자 1 : 예, 예.

황영태 : 예, 알겠습니다.

남자 1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32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34분 02초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상황담당관 유연식 / 본청 수색구조과장 박종철

유연식 : 예. 상황담당관입니다.

박종철 : 예. 본청 수색구조과장인데요.

유연식 : 예?

박종철 : 본청 수색구조과장입니다.

유연식 : 예, 예.

박종철 :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구조하는 것도 중요하고, 그다음에 구조된 인력에 대한 카운트를 지금 정확히 못하고 있거든요. 그 카운트를 좀... 왜냐하면 이게 청와대에 서 실시간으로 물어보는데 카운트가 안 되고 있고, 그다음에 헬기에서 우리 항공구조사를 누가 강습을 해가지고 레펠로 그 여객선에 내려가 가지고 여객선 상황을 파악해 주고 여객선 안내를 좀 해 줘요, 여객들. 그게 좀 안 되고 있거든요.

유연식 : 예, 알았어요.

박종철 : 상황담당관님께서 한 명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시켜서... 지금 아까 1시간 전부터 지시를 하는데 청장님이, 그게 이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.

유연식 : 예, 알았습니다.

박종철 : 예. 그렇게 조치하십시오.

- 끝 -



◆ 녹음 순번 : #33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40분 38초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상황담당관 유연식 /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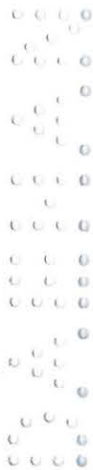
유연식 : 예. 상황담당관입니다.

황영태 : 예. 본청 실장입니다.

유연식 : 예.

황영태 : 지금 인원 한 게 70명까지 구조된 건 확인이 됐는데, 더 이상 해가지고 구조된 게 없나요?

유연식 : 12명을, 12명을 인근 선박에서... 아까 그 화면에 나왔잖아요. (전화 끊김)





◆ 녹음 순번 : #34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45분 21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 / 남자 2 / 목포서 상황실장

황영태 : 예. 상황실장입니다

남자 2 : 어.

황영태 : 예, 예.

남자 2 : 그거 다 이탈은 했냐, 배에서?

황영태 : 그것도 지금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.

남자 2 : 그게 지금 제일로 우선으로 물어보던데.

황영태 : 예.

남자 2 : 응. 그거 빨리 좀 확인해 줘야 되겠다.

황영태 : 예. 그러니까 배가 지금 작은 거 하나만 도착해 놓으니까 지금 아무것도 지금...
대형함정이 안 가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.

남자 2 : 구조선이 아까 뭐 30, 40척 있다 그러네, 구조선이.

황영태 : 예. 근데 저희들이 통계를 안 받는 그거니까 저희들하고 연락이 안 되는 배들이
니까 배들은 있어도,

남자 2 : 아~ 그 선장이 있을 건데 선장은 전화가 안 되는 모양인데.

황영태 : 예, 예.

남자 2 : 어, 알았다.

황영태 : 예.

(전화 끊김) (통화연결음)

남자 3 : 감사합니다. 목포 상황실장입니다.



황영태 : 본청 실장인데요.

남자 3 : 예, 예.

황영태 : 지금 정확하게 구조한 인원 다시 한 번 불러봐 봐요.

남자 3 : 아, 지금 집계 중에 있습니다.

황영태 : 아, 집계 한번 해봐요. 그럼 P123정에서 52명 맞아요? 여보세요?

남자 3 : 예, 예.

황영태 : 123정에서 52명 구해가지고 707에,

남자 3 : 지금 그...

황영태 : 정확하게 좀,

남자 3 : 예. 파악해서 전화 드리겠습니다.

황영태 : 아니, 그걸 좀...

남자 3 : 예, 알겠습니다. 예.

황영태 : 아, 저기 생각해서... 나온 거 얼마예요?

남자 3 : 아, 지금 이쪽저쪽으로 막 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중복된 걸 파악하고 있는 중
입니다, 중복된 걸 지금. 예. 빨리 보고 드리겠습니다.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35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56분 31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 / 남자 1

남자 1 : 예, 감사합니다. **

황영태 : 어. 내 핸드폰 좀 상황실로 빨리 갖다 주라.

남자 1 :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

황영태 : 응.





◆ 녹음 순번 : #36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57분 15초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상황실장 /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

남자 1 : 감사합니다. 상황실장입니다.

황영태 : 예. 본청 실장인데요.

남자 1 : 예, 예.

황영태 : 정확하게 구조인원 다시 한 번 불러봐 봐요.

남자 1 : 79명입니다.

황영태 : 79명이요?

남자 1 : 예, 현재요.

황영태 : 123에서 52, 항공기가 18이라 그랬죠?

남자 1 : 예, 예.

황영태 : 그다음에 79명이 더 어디서 한 거예요?

남자 1 : 지금 122구조대하고 그다음에 127정하고 이용해갖고 현장에서 구조하고 그렇습니다.

황영태 : 구조대 123이 구한 게 또 추가로 9명을 더 구한 거예요?

남자 1 : 아니, 아니요. 잠깐만요.

황영태 :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불러봐 봐요, 정확하게.

남자 1 : **

황영태 : 아니, 이야기 불러봐 보십시오. 여보세요?

남자 1 : 예, 예.

황영태 : 123에서 맨 처음에 52명 했다면서요?



◆ 녹음 순번 : #37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04분 01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 / 서해청 상황담당관 유연식

황영태 : 예. 상황실장입니다.

유연식 : 본청이죠?

황영태 : 예, 예.

유연식 : 그 학생들이 안에서 많이 못 나왔다는데?

황영태 : 안에서 많이 못 나왔다고요?

유연식 : 예. 큰일이네. 배는 침몰했습니다.

황영태 : 배는 침몰했고, 몇 시에 침몰했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?

유연식 : 정확한 시간은 지금 안 나오는데,

황영태 : ** 파악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.

유연식 : 예, 예.

황영태 : 학생들이 안에서 많이 못 나왔다고요?

유연식 : 예, 예.

황영태 : 큰일 났네.

유연식 : 예. 알았습니다.

황영태 : 예.

— 卅 —

◆ 녹음 순번 : #38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05분 11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항공과 장영철 / 남자 1 / 남자 2

남자 1 : 예.

장영철 : 예. 저 본청 상황실입니다.

남자 1 : 예.

장영철 : 예. 지금 항공기 혹시 항공기들은 TRS 몇 번대로 돌려져 있습니까?

남자 1 : (옆 사람에게 물어본 후) 26번이요.

장영철 : 26번으로 쓰고 있습니까?

남자 1 : 예, 예.

장영철 : 아, 52로 그러면 청하고 연락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, 지방청하고?

남자 1 : 항공기는 우리 항공담당이 옆에서 26번을 틀고 지금 지시를 하고 있어요.

장영철 : 아, 그래요?

남자 1 : 예.

장영철 : 예. 그러면 좀 바꿔주시겠습니까? 그 항공담당.

남자 2 : 예.

장영철 : 예, 김 주임님, 장영철입니다, 항공과.

남자 2 : 예.

장영철 : 지금 그러면 항공기는 TRS는 전부 다 52번은 지금 못 듣고 있는 거네요?

남자 2 : 그렇죠.

장영철 : 아, 그래요?

남자 2 : 예. 26번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.



◆ 녹음 순번 : #39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07분 28초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상황담당관 유연식 /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

유연식 : 여보세요?

황영태 : 예. 고생 많으십니다. 본청 상황실장입니다.

유연식 : 예, 예.

황영태 : 아까 담당관님이 학생들 안에서 많이 못 나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?

유연식 : 예, 예.

황영태 : 그게 얼마 정도 그런 건 추정이 안 되죠?

유연식 : 예. 추정이 안 되고, 현장에 선장하고 통화가 돼야 되는데 선장이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야.

황영태 : 선장이요?

유연식 : 예.

황영태 : 아... 배가 침몰한 지는,

유연식 : 10시 49분에 완전히 침몰하면서 조난선 조난신호 왔습니다.

황영태 : 10시 49분 이퍼브 땀네요.

유연식 : 예, 예.

황영태 : 그러면 10시 49분으로 하면 되고.

유연식 : 예.

황영태 : 현장에 인원수 해가지고 계속 사람 구조하면 구조한 대로 해가지고 올려주십시오.

유연식 : 예, 예.



황영태 : 그리고... (전화 끊김)



◆ 녹음 순번 : #40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10분 26초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상황실장 /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 / 목포서 상황실장

남자 1 : 감사합니다. 상황실장입니다.

황영태 : 예. 본청 실장인데요.

남자 1 : 예, 예.

황영태 : 우리 지금 해가지고 구조한 사람들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? 구조한 사람들 어디로 모으고 있어요?

남자 1 : 진도 저 서망 쪽으로 가가지고요.

황영태 : 진도 서망이요?

남자 1 : 예, 예.

황영태 : 아까 원래는 서거차도로 갈 거라고,

남자 1 : 예, 서망이요. 거기가 진도파출소입니다.

황영태 : 아니, 그러면 진도파출소로 간다고요?

남자 1 : 예. 그쪽에서 해가지고 진도군청이랑 현지에서 해가지고 전부 다 병원 쪽으로,

황영태 : 그러면 아까 처음에 서거차도로 간 사람들은요?

남자 1 : 예?

황영태 : 서거차도로 간 사람들은... 아까 몇 명 거기로 헬기 이동했다면서요?

남자 1 : 아닙니다. 저기... 다시 한 번 확인 한번 해 볼게요.

황영태 : 아니, 정확하게 그거 해 가지고 사람들을 어디로 지금 가는가, 어디로. 서망으로 가는 거예요?

남자 1 : 예, 예.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

황영태 : 하고, 그거는 서해청에서 해요, 목포서에서 해요?

남자 1 : 같이 하고 있습니다.

황영태 :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가는 아직 모르네요?

남자 1 : 예, 예.

황영태 : 예. (전화 끊김)

남자 3 : (통화연결음) 예, 감사합니다. 목포 상황실입니다.

황영태 : 본청인데요.

남자 3 : 예.

황영태 : 지금 해가지고 서거차도에 사람 있잖아요.

남자 3 : 예.

황영태 :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있나요?

남자 3 : 배에 있고 그러합니다.

황영태 : 배에 현장?

남자 3 : 예. 배에서는 계속 서거차도 방향으로 지금 이동을 시키고 있고요.

황영태 : 서거차도 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 거죠?

남자 3 : 예.

황영태 : 서거차도에 가면 지금 직원 누구 나가 있어요?

남자 3 : 거기는 파출소가 하나 있습니다, 파출소가. 아니, 출장소가 있습니다, 출장소가.

황영태 : 출장소 누구예요, 오늘 근무자가?

남자 3 : 오늘 출장소장인데 아직 파악 안 해봤습니다.

황영태 : 그거 해가지고 전화번호 나중에 본청에다... 이름만 가르쳐 줄래요?

남자 3 : 예, 알겠습니다.

황영태 : 그리고 서거차도에 88명?

남자 3 : 예.

황영태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41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14분 09초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상황실장 /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

남자 1 : 예. 서해청 상황실입니다.

황영태 : 본청 실장인데요.

남자 1 : 예?

황영태 : 본청 실장이라고요.

남자 1 : 예. 잠깐만 기다리십시오.

황영태 : 예.

남자 3 : 감사합니다. 상황실장입니다.

황영태 : 예. 본청 실장이고요.

남자 3 : 예, 예.

황영태 : 지금 해가지고 보니까 서거차 출장소로 다 갔네요, 지금 88명은.

남자 3 : 예, 예.

황영태 : 그거 확인했어요?

남자 3 : 예, 예.

황영태 : 그런데 아까 진도 서망이라고 그랬잖아요.

남자 3 : 전부 다 저희들이 해가지고 진도하고 해남 쪽에 가까운 병원 쪽으로 이송시키려고 지금,

황영태 : 예. 그렇다고 해도 사람은 그런데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잖아요.

남자 3 : 예, 예.

황영태 : 해가지고 안전하게 그거 하고, 지금 거차에 88명 있는 거는 확인되고 나머지 지

금 해상에 지금 해가지고 승선원... 내려서 표류하는 사람 보입니까? 그거는 그
거 해가지고... 모르죠?

남자 3 : 예.

황영태 : 일단 알았습니다.

남자 3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42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15분 40초

◆ 대 화 자 : 3009함 항해장 /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

남자 1 : 예, 감사합니다. 3009함 항해장입니다.

황영태 : 예. 본청 상황실장인데요.

남자 1 : 예, 예.

황영태 : 여기가 지금 3009함 맞죠?

남자 1 : 예, 그렇습니다.

황영태 : 3009함에 서장님 태우고 지금 현장 이동 중이죠?

남자 1 : 예, 그렇습니다. 서장님하고 안전총괄부장님 두 분 타고 계십니다.

황영태 : 거기 3009함에 지금 해가지고 그러시면 아산에서 안행부장관이 지금 작전헬기로
해가지고 현장 가려고 하는데 3009함에 착함한다고 그러네요.

남자 1 : 예, 예, 알겠습니다.

황영태 : 그거 해가지고 오면, 장관님 오면, 안행부장관 오면 그 부분 해가지고 서장님...
(전화 끊김)





◆ 녹음 순번 : #43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16분 42초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상황실장 /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

남자 1 : 감사합니다. 상황실장입니다.

황영태 : 예. 고생 많습니다. 본청인데요.

남자 1 : 예, 예.

황영태 : 일단 현장 구조자들을 여러 군데 분산해 버리면... 구조자 집계를 한쪽에서 정확
하게 좀 해 주십시오. 계속 여기 지금... 여기도 그쪽 바쁜 거 아는데,

남자 1 : 예, 알았습니다. 우리 정보 쪽 해 갖고 이야기할게요.

황영태 : 그리고 지금 글자, 함정에 글자 크기들도 36으로 좀 다 맞추라고 하십시오.

남자 1 : 예, 예.

황영태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44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21분 21초

◆ 대 화 자 : 목포서 상황실 고성은 /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

고성은 : 예. 목포해경 상황실 고성은 경사입니다.

황영태 : 예. 본청 실장입니다.

고성은 : 예. 안녕하십니까?

황영태 : 예. 현재 지금 구조세력 파악된 게 몇 명인가요?

고성은 : 구조세력은 저희 구조하는 세력 말씀하십니까?

황영태 : 아, 구조한 사람이요.

고성은 : 구조한 사람은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148명입니다.

황영태 : 148요?

고성은 : 예, 예.

황영태 : 그런 사항들을 해가지고 서해청하고 해가지고 현재 구조세력 정확하게 좀 올려 주십시오.

고성은 : 정확하게요?

황영태 : 예.

고성은 : 예, 예, 알겠습니다.

황영태 : 예.

고성은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45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23분 26초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상황실장 /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

남자 1 : 감사합니다. 상황실장입니다.

황영태 : 예. 고생 많습니다. 본청인데요.

남자 1 : 예, 예.

황영태 : 계속 자주 전화하고 그러는데, 지금 정확하게 아까 148... 지금까지 확인이 148이 맞는가요?

남자 1 : 161명이요.

황영태 : 161요?

남자 1 : 예.

황영태 : 이거는 우리하고 지금 어선하고 다 합친 거죠?

남자 1 : 예?

황영태 : 우리 구조한 거랑 인계 받은 거하고 다 합친 겁니까?

남자 1 : 예.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입니다.

황영태 : 161명이요?

남자 1 : 예.

황영태 : 그러면 지금 해가지고 이메일트상에 11시 10분 현재 100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누구 해가지고 100 몇 했다고 올려줘요.

남자 1 : 예?

황영태 : 11시 10분 현재 어디에서 몇 명, 몇 명, 몇 명 해가지고 161명 구조했다고 시간 대별로 쪽 이메일트상에다 올려달라고요.





남자 1 : 예, 알았어요.

황영태 : 예,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46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27분 37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 / 서해청 부장 이평현

황영태 : 예, 상황실장입니다.

이평현 : 아, 예, 서해청 부장인데요.

황영태 : 예, 안녕하십니까? 예, 영태입니다.

이평현 : 지금 현장으로 가고 있는데, 뉴스가 지금 숫자가 다 틀려요. 지금 안에서 못 나온 사람이 200명이 넘어요, 배 안에서 못 나온 사람이.

황영태 : 그러니까 저희도 여기서... 부장님, 여기서 해가지고 여기서 나간 건 아니고, 언론보도가 그냥 앞서 나간 겁니다. 저희들이 해가지고 안에 많이 있다는 건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거든요.





◆ 녹음 순번 : #47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31분 52초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상황실장 /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

남자 1 : 감사합니다. 상황실장입니다.

황영태 : 본청 실장인데요.

남자 1 : 예.

황영태 : 바쁜 건 알겠는데 11시 현재 해가지고 동원세력하고 구조인원 해가지고 상황보고서 하나 보내주십시오.

남자 1 : 예, 알겠습니다.

황영태 : 예.



◆ 녹음 순번 : #48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32분 10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 / 교육원 훈련계획팀

황영태 : 예. 당겨 받았습니다. 상황실장입니다.

남자 2 : 예. 수고하십니다. 교육원 훈련계획팀의 채** 경사입니다.

황영태 : 예.

남자 2 : 예. 훈련함을 가라고 했다는데, 여수에 있는 훈련함 그쪽으로 갑니까? 이동합니까? 지시가 없어서요.

황영태 : 누구한테 연락 받았어요?

남자 2 : 경비계에서 연락 왔었습니다, 일단은.

황영태 : 해가지고 이동하십시오.

남자 2 : 일단 이동합니까, 그쪽으로?

황영태 : 예, 예.

남자 2 : 예. 저희가 지금 출항해서 나가고는 있거든요.

황영태 : 예, 알겠습니다.

남자 2 : 저희 쪽으로 그러면 전문 하나 부탁드립니다.

황영태 : 구두지시로 가요. 본청 상황실장 구두지시로.

남자 2 : 예, 알겠습니다, 그럼.

— 끝 —

◆ 녹음 순번 : #49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33분 50초

◆ 대 화 자 : 목포서 상황실 /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

남자 1 : 감사합니다. 목포 상황실입니다.

황영태 : 예. 현장지휘함이 뛰. 오백십,

남자 1 : 1508 도착해갖고 현장 지휘하겠습니다.

황영태 : 1508 도착했어요?

남자 1 : 예. 거의 다 와갑니다.

황영태 : 다 와간다고요?

남자 1 : 예. 1508로 현장지휘함 결정했습니다.

황영태 : 아, 예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아까 승선인원이 570,

남자 1 : 아니, 아니, 474명, 474명이요.

황영태 : 474요? 477로 우리는 파악했는데?

남자 1 : 474, 474. 예. 선원 27명, 승객 447, 447. 이상입니다.

황영태 : 27이에요?

남자 1 : 예.

황영태 : 474라고요?

남자 1 : 예, 474, 총 474.

황영태 : 우리는 477로 파악했는데 금방. 그거는 나중에 수정하면 되는 거고. 예, 알겠습니다.

남자 1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50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40분 15초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상황담당관 유연식 /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

유연식 : 예. 상황담당관입니다.

황영태 : 예. 본청 상황실장입니다.

유연식 : 예, 예.

황영태 : 보고 있는데 우리 잠수인력 4명 해가지고 구조대,

유연식 : 예?

황영태 : 우리 구조대 인력 들어갔나요? 선체 수색?

유연식 : 우리 구조대 인력 물속에 들어갔냐고요?

황영태 : 예, 예.

유연식 : 아직은 잠수는 안 했습니다. 잠수 아직 안 했습니다.

황영태 : 아, 현장은 도착했습니까?

유연식 : 예. 현장에는 (옆 사람에게 물어본 후) 23명이 현재 가 있고,

황영태 : 23명.

유연식 : 예. (옆 사람에게 대화한 후)

알았습니다.

황영태 : 현장 도착해가지고 들어갈 예정에 있죠?

유연식 : 예?

황영태 : 현장 도착해가지고 다이버 들어갈 겁니까, 지금?

유연식 : 예, 예.

황영태 : 현장 지금 현재,





유연식 : 아, 그러니까 다이버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, 침몰이 아직 덜 됐네.

황영태 : 예, 예.

유연식 :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야죠.

황영태 : 예.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주변에 해상에 떠다니는 사람은 없습니까?

유연식 : 없다고 그러네요.

황영태 : 해상에는요?

유연식 : 예.

황영태 : 아, 예, 알겠습니다.

유연식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51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46분 25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 / 서해청 상황담당관 유연식

유연식 : 예. 상황담당관입니다.

황영태 : 예. 안녕하십니까? 본청 상황실장입니다.

유연식 : 예.

황영태 : 해수부 장관이 챌린지로 무안공항으로 가신다 그러네요.

유연식 : 아, 그래요?

황영태 : 예. 무한공항으로 오면 무한공항에서 현장을, 현장 가보신다고.

유연식 : 예.

황영태 : 펜더511을 지금 중지, 임무 중지하고 무안공항 가서 연료 수급 받고 대기하라고
그렇게,

유연식 : 누가 그래요?

황영태 : 이쪽에서 지금 해가지고,

유연식 : 아니, 본청에 누가 지시를 그렇게 하지?

황영태 : 저도 해가지고 전달받았거든요. 장관님,

유연식 : 아니, 구조하는 사람을 놔두고 오라고 하면 되겠어요?

황영태 : 아, 예, 알겠습니다, 무슨 말씀인지.

유연식 : 확인하고 연락 주세요.

황영태 : 예,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52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49분 42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 / 본청 경비과 배소한

황영태 : 예.

배소한 : 예, 실장님, 경비계 배소한입니다.

황영태 : 예.

배소한 : 혹시 여수에,

황영태 : 훈련함 이동하라고 지시했는데?

배소한 : 아, 지시하셨습니다?

황영태 : 예. 아까 훈련함에서 전화가 왔기에 상황실장 구두지시로 해가지고 현장 이동하라고 지시했어요.

배소한 : 아, 그렇습니까?

황영태 : 예, 예. 왜요?

배소한 : 아니, 아까는 출항 여부 확인만 해달라고 해가지고 기획과장한테 확인을 해드렸는데, 지시 별도로 내리시라고... 따로 지시가 있으셨네요?

황영태 : 아니요. 구두로 해가지고 자기 연락, 자기도 먼저 전화가 왔더라고요, 연락 받았다고, 근데 가야 되냐고, 지시 하나 내려달라고 하기에 지금 이 시간에 바빠서 지시 내릴 힘도 없고 구두지시로 이동하라고 지시했는데?

배소한 : 예. 그러니까 실장님 전화 말고 지금 누구도 지시한 사람이 없습니다.

황영태 : 그래요?

배소한 : 예.

황영태 : 내가 그 훈련함에 누구더라? 이름은 모르겠는데 훈련함이라고 전화 왔더라고 내



한테.

배소환 : 예, 예.

황영태 : 그래서 그랬는데. 다시 한 번 확인... 내가 확인하기는 그렇고 그쪽으로 전화 한 번 해 보십시오. 아까 내가 분명히 전화로 지시를 했거든요.

배소환 : 아, 알겠습니다.

황영태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53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52분 10초

◆ 대 화 자 : 목포서 상황실장 /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

남자 1 : 예. 목포 상황실장입니다.

여보세요?

황영태 : 예. 본청 실장인데요.

남자 1 : 예, 예.

황영태 : 현장 1508이 현장지휘함이죠, 이제?

남자 1 : 예, 그렇습니다.

황영태 :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해상에 사람들 있나요?

남자 1 : 아, 지금 해상에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데, 조금 전에 우리 P35정에서 11시 35분에 시신을 하나 발견을 하나 했습니다.

황영태 : 11시 35분이에요?

남자 1 : 예, 인양을 하나 했습니다.

황영태 : 구명동의를 안 입었나, 애들이? 아...

남자 1 :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.

황영태 : 그러면 해가지고 그 상황 좀 하고 그다음에 지금 주변에 인계받은, 어선들한테서 해가지고 인계받은 것 있습니까?

남자 1 : 아, 아리랑호라 해가지고 아리랑호에서 50명을 태워가지고 지금,

황영태 :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가나요?

남자 1 : 아, 저 서망으로 들어갈 겁니다.

황영태 : 나머지는요?



남자 1 : 예, 예.

황영태 : 그러면 지금 서거차도에 있는 사람들도,

남자 1 : 서거차도에 있는 사람은 또 환자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서망에다 119구조대를
대기시켜 놔습니다, 지금.

황영태 : 그리로 다 보낼 거네요?

남자 1 : 예, 그렇습니다.

황영태 : 이제 서망 쪽으로?

남자 1 : 예, 예.

황영태 : 그럼 서거차도에 있는 인원들도 서망 쪽으로 다 이동하네요?

남자 1 : 예, 그렇습니다.

황영태 : 그러면 162는, 지금까지 162명은 맞고요?

남자 1 : 예, 예.

황영태 : 그다음에 서거차도에 87명 있는 사람들은,

남자 1 : 아, 지금 서거차도에 있는 사람을 그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, 지금.

황영태 : 아, 서망으로 옮기고 있다고요?

남자 1 : 예, 예.

황영태 : 아~ 그러면 전부 다 해가지고 162명은 우리가 이래저래 다 인계받은 사항은 맞
고?

남자 1 : 예.

황영태 : 그 외에 더 이상 늘릴... 언론에는 300 몇 십 명 이렇게 나오는데?

남자 1 : 언론은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우리는 언론에다 그거 준 사실도 없습니
다.

황영태 : 그래요?



남자 1 : 예.

황영태 : 학생들은 전부 다 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맞나요?

남자 1 : 아닙니다. 우리는 그거 확인된 사항이 없습니다.

황영태 : (한숨) 예. 일단 뭐 알아...

남자 1 : 예.

황영태 : 일단 서망으로 다 가는 거죠?

남자 1 : 예?

황영태 : 서망으로 다 이동하는 거죠?

남자 1 : 예, 그렇게 할 겁니다.

황영태 : 예.

남자 1 : 예,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54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55분 01초

◆ 대 화 자 : 제주청 상황실 /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 / 남자 3

남자 1 : 예. 제주청 상황실입니다.

황영태 : 예. 고생 많으십니다. 본청 실장인데요.

남자 1 : 예, 예.

황영태 : 실장님 좀 부탁드립니다.

남자 1 : 지금 통화 중에 있는데요.

황영태 : 아, 그러면 펜더512 있지 않습니까?

남자 1 : 예.

황영태 : 좀 이따가 그거 유류 수급 차 해가지고 무안으로 가가지고 유류 수급하고 오면
될...

남자 1 :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.

황영태 : 예.

남자 3 : 감사합니다. 상황실장입니다.

황영태 : 예. 본청 실장인데요.

남자 3 : 예, 예.

황영태 : 해수부 장관 현장 가신다고 내려간 건 알고 계시죠?

남자 3 : 예, 연락 받았습시다.

황영태 : 챌린지로 내려갈 거고, 무안항공 챌린지 도착하면 현장 이동은 있지 않습니까?

남자 3 : 예.

황영태 : 아까 상황담당관이 그러는데 경비국장님이 장관님 편승 차 헬기 이동시키지 말





고 어차피 유류 수급하러 무안공항으로 간 김에 유류 수급하고 장관 태우고 오
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네요, 국장님이. 그러니까 장관 편승 차 간다고 이동한다고
이야기는 하지 말고요.

남자 3 : 예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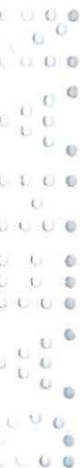
황영태 : 실제로 유류 수급도 하면서 장관 편승할 김에 그렇게 이동하랍니다.

남자 3 : 항공대에다 연락하겠습니다.

황영태 : 예. 여기에서는 항공대에, 본청에서 항공대에 연락할게요.

남자 3 : 예, 예.

황영태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55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56분 49초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상황담당관 유연식 /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

유연식 : 예. 상황담당관입니다.

황영태 : 예. 본청 상황실입니다.

유연식 : 예.

황영태 : 항공담당 좀 부탁드립니다.

유연식 : 항공! 항공! 항공! 항공 어디 갔냐? 항공 내 옆에 있으라 그랬지. 항공! (전화 끊김)

